



China

베이징지사

세계 최대 맥주시장 중국, 수제맥주에 눈뜨다

수제맥주시장에 해외자본 유입

덴마크의 글로벌 맥주기업 칼스버그(CARLSBERG)가 쏟아 올린 신호탄을 계기로, 2019년 중국의 맥주시장에는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칼스버그는 최근, 중국 수제맥주 기업 징A(京A)맥주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으며 징A맥주 공장설비 개선 및 유통망 확대에 제법 큰 금액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제맥주시장은 중국 전체 맥주 시장 규모의 약 1%만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태동기에 불과하지만,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자 중국 맥주업계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다.

저명한 식품산업 분석전문가 주단평(朱丹蓬)에 따르면, 징A 맥주와의 협력은 칼스버그가 자사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포석을 까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인다. 세계 4대 맥주회사로 손꼽히는 칼스버그는 뒤늦게 중국 시장에 진출한 탓에 국제적인 유명세에 비해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 수제맥주를 찾는 수요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중국 맥주시장의 변화를 읽고, 중국계 수제맥주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자사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며 시장 판도를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제맥주시장 진출, 선택 아닌 필수

2018년 전 세계 맥주 총 생산량은 1억 9,517만 톤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은 22%(4,423만 톤)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맥주 생산국이자 맥주 소비액 5,600억 위안(약 92조 원)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맥주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맥주업계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수백 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 수제맥주를 찾기 시작한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공략하는 것은 향후 중국 맥주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수제맥주시장은 2015년 850억 달러(약 95조 원)에서 2025년 5,029억 달러(약 563조원)로 연평균 19%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향후 3년 내 수제맥주가 전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수제맥주 '플래티넘' |



Key Point

온라인 유통망 이용한 수출전략 세우는 것이 바람직

- 맥주 냉장유통의 발달로 소규모 수제맥주들도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수제맥주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질 좋은 맥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제맥주의 수출이 미국·유럽보다 유리하며,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온라인 매장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은 오프라인 유통망보다 중국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판매망을 개척하는 방법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 방식이 될 것이다.